동아시아국 긴축통화정책 실시

95년 경제과제 인플레억제 주력 … 수출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아세안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올해 경제정책의 최대과제를 인플레 억제에 두고 금리인상, 수입가격 인하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단위 : %)

구 분	1994(추정)		1995(전망)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타이	8.5	5.0	8.8	4.8
인도네시아	7.3	9.2	7.3	6.0
필리핀	4.3	9.0	4.9	6.5
말레이지아	8.7	3.9	8.2	4.3
싱가폴	9.4	4.0	7.9	3.0
홍콩	5.5	8.0	5.8	8.5
대만	6.0	4.1	6.2	3.8
한국	8.4	5.6	7.0	5.0
중국	11.0	24.2	10.3	15.0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94년에 이어 올해도 긴축통화정책을 실시, 총통화규모를 통제하고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우리 수출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94년 10월부터 금리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특히 말레이지아는 주요 식료품 2600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등 수입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타이는 94년9월 재할인율을 9%에서 9.5%로 인상한데 이어 11월부터는 과잉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상업은행의 외화차입 및 외화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폴은 수입물가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통화 가치의 절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이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경기회복과 역내 무역의 확대로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은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여파로 인플레가 위험수위에 도달, 94년 중국의 24.2%를 비롯 인도네이사와 필리핀이 9.24%와 9%, 홍콩이 8%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율이 공식적인 발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저널 1995/3/13>